

‘2024 Peace Music Festival in Tokyo’ 공연 개최

금난새 지휘와 해설로 함께 하는 실내악과 챔버 오케스트라

주일한국문화원(원장 공형식, 이하 문화원)은 한국에서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지휘자 금난새의 해설로 진행되는 실내악 앙상블 및 챔버 오케스트라 콘서트를 3일간 주일한국문화원 한마당 홀에서 선보인다.

5.13(월) 첫번째 무대는 하모니카, 기타와 피아노가 만들어내는 매력적인 트리오 음악과 함께 대한민국 클래식계의 떠오르는 바이올린, 첼로 그리고 피아노 유망주들의 연주, 5.14(화) 두번째 음악회에는 2021년 미국 피쉬오프 챔버 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로 시니어스트링부문 우승과 함께 전부문 대상을 수상한 현악4중주 <리수스 콰르텟>의 앙상블 연주, 5.16(목) 마지막 세번째 음악회는 지휘자 금난새의 지휘로 <뉴월드 챔버 오케스트라>와 젊고 유능한 연주자들의 협연을 펼친다.

5.13(월) 출연자는 도쿄 공연에 앞서 5.12(일) 히로시마공연 (주히로시마총영사관 주최)에도 출연할 예정이다.

□ 행사개요

- 행사명: 2024 Peace Music Festival in Tokyo
- Artistic Director Gum Nanse -
- 일시: 2024.5.13.(월), 14.(화), 16(목) 19시~ ※ 3 회 공연
- 장소: 주일한국문화원 한마당 홀
- 주최: 주일한국문화원
- 주관: Birdhouse Creatives
- 후원: KJE(한일경제협회)

붙임 1. 프로그램 2. 출연 3. 행사 홍보물

담당 부서	주일한국문화원	행사담당자	팀 장	박지훈 (+81-3-3357-5970)
		홍보담당자	팀 장	조은경 (+81-3-3357-5970)

Day1 5.13(월)

바이올린 김다연 / 첼로 최아현 / 피아노 최이삭 / 하모니카 이윤석 / 기타 지익환 / 피아노 김기경

이자이 - 바이올린 무반주 소나타 3번, '발라드' 작품 27

Ysaye - Sonata for Violin Solo No. 3 in d minor, 'Ballade', Op. 27

카사도 - 레퀴에브로스 / Cassadó - Requiébros

헨델/할보르센 - 파사칼리아 / Handel/Halvorsen - Passacaglia

무디 - 불가리안 웨딩 댄스 / Moody - Bulgarian Wedding Dance

브라우어 - 11월의 어느 날 / Brouwer - Un Dia de Noviembre

영화음악 즉흥연주 / Filmmusic Improvisation

피아졸라 - 리베르탱고 / Libertango - Libertango

Day2 5.14(화)

리수스 콰르텟 (바이올린 이해니 / 바이올린 유지은 / 비올라 장은경 / 첼로 마유경), 튜바 문지웅 / 유포니움 히데노리 아라이(新井秀昇)

베토벤 - 현악4중주 9번 다장조, 작품59-3

Beethoven - String Quartet in C Major, Op. 59, No. 3

그레이엄 - 두 대의 유포니움을 위한 브릴란테

Graham - Brillante for Two Euphoniums

Day3 5.16(목)

뉴월드 챔버 오케스트라, 바이올린 김다연 / 하모니카 이윤석 / 기타 지익환

그리그 - 홀베르그 모음곡 작품 40 중 1악장

Grieg - Holberg Suite, Op. 40, 1st mov.

피아졸라 - 사계 중 '여름'

Piazzolla - 'Summer' from The Four Seasons of Buenos Aires

홀스트 - 세인트 폴 모음곡 중 '지그' / Holst - 'Jig' from St. Paul's Suite

무디 - 불가리안 웨딩 댄스 / Moody - Bulgarian Wedding Dance

젠킨스 - 팔라디오 / Jenkins - Palladio

디앙 - 탱고앤스카이 / Dyens - Tango en Skai

레스피기 - 고대 무곡과 아리아 중 4악장, '파사칼리아'

Respighi - Ancient Aires and Dances, Suite No. 3, 4th mov. 'Passacaglia'

붙임 2 출연자

지휘자 금난새 | 음악감독 겸 지휘자

한국이 사랑하는 지휘자 금난새는 서울대 졸업 후 베를린 음대 에서 라벤슈타인을 사사했다. 1977년 최고 명성의 카라얀 콩쿠르 입상 뒤 유러피안 마스터 오케스트라(EMO) 음악감독 겸 상임지휘자를 거쳐 모스크바 필하모닉, 독일 캄머 오케스트라 등을 지휘했으며, KBS교향악단 전임지휘자와 수원시향, 경기 필하모닉, 인천시향 상임 지휘자를 역임했다. 1998년 부터는 ‘벤처오케스트라’인 유라시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현, 뉴월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를 창단해 왕성한 활동을 펼치며 시민들을 위한 다채롭고 풍성한 음악을 선사하고 있다. 2015년부터 현재까지 성남시립예술단의 총감독이자 상임지휘자로 활동하고 있다.

바이올린 김다연 / 만 5세에 바이올린을 시작하여 조선일보콩쿠르 대상전 무대에서 최연소로 대상을 받으며 데뷔하였다. 중앙콩쿠르, 이화경향콩쿠르, 음악춘추콩쿠르 등 유수의 콩쿠르에서 1위를 하였고 신한음악상 대상 수여 및 현대차 정몽구재단 문화예술학부 장학생이다. 현재는 서울대학교에 재학 중이다.

첼로 최아현 / 만 10세에 한국예술영재교육원에 입학하였으며 만 15세에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영재입학하였다. KCO콩쿠르, TBC콩쿠르, 오사카 국제콩쿠르에서 현악부문 1위와 함께 저널리스트상, 파리뮤직포럼상으로 3관왕을 차지하였으며 벨기에 이자이 콩쿠르, 베를린 라이징스타국제콩쿠르에서 1위 등 국내외 콩쿠르에서 우승하였다.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 3학년에 재학중이며 현대차정몽구 장학재단의 문화예술 장학생이다.

피아노 최이삭 / 2023년 중앙음악콩쿠르에서 1위 없는 2위에 입상하였고 2019년 일본에서 열린 이시카와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3개의 특별상을 석권하며 우승, 네이버 클래식 아티스트 리그 우승, 이화 경향 콩쿠르 1위 등 국내 우수 콩쿠르들을 석권하였다. 이탈리아 부조니 국제 피아노 콩쿠르, ARD 뮌헨 국제 음악 콩쿠르 등에도 최연소로 본선 진출을 한 바 있다.

하모니카 이윤석 /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작곡과를 최우등으로 졸업한 후, 오슬로에 위치한 노르웨이 음악원(Norges musikkhøgskole)을 개교 역사상 최초로 하모니카 전공으로 입학하여 세계적 하모니시스트 ‘지그문트 그로브’을 사사하는 등 더욱 전문성을 다져왔다. 예술의전당, 세종문화회관, 금호아트홀 등의 무대에서 연주하며 인천시향, 성남시향 등 우수 교향악단과 협연한 그는 현재 명지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객원교수로 후학 양성에 힘쓰고 있다.

기타 지익환 / 서울예술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였다. 그는 서울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콩쿠르 1위, 한국기타협회 콩쿠르 2위, 심양 국제 콩쿠르 2위 등 다수의 콩쿠르에서 입상하며 음악가로서의 실력을 입증했으며 한국 음악계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계속해서 다채로운 연주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피아노 김기경 /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사, 예술전문사 과정, 베를린한스아이슬러국립 음대에서 석사과정을 졸업하였으며 슈투트가르트국립음대 최고연주자 과정, 서울대학교에서 음악박사과정을 수학하였다. 중앙음악콩쿨, KBS서울신인음악콩쿨 등에서 1위, 이태리 발티돈 국제음악콩쿨, 스페인 파테르나 국제피아노콩쿨 등 수많은 국제무대 콩쿠르에서 수상하였다. 현재 유튜브 채널 <Pianist KK>, 복합문화공간 <서울숲 스튜디오 301> 을 운영하며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를 개발하고 공연을 제작하고 있다.

리수스 콰르텟 (Risus Quartet) / ‘리수스’ 는 라틴어로 웃음이라는 뜻으로 관객들에게 연주로 즐거움을 주고 싶다는 의미에서 2020년 5월에 창단되었다. 제1 바이올린 이해니, 제2 바이올린 유지은, 비올라 장은경, 첼로 마유경 으로 구성된 리수스 콰르텟은 서울대학교를 졸업한 동문으로 2021년 미국에서 열린 피쉬오프 챔버콩쿠르에 한국인 최초로 시니어스트링부문 우승과함께 전부문 대상을 수상하였으며 2022년에는 위그모어 홀 국제 현악사중주 콩쿠르에서 특별상을 수상, 미국 제 37회 옐로 스프링스 콩쿠르에서 우승, 독일 ARD 국제 콩쿠르에 Semi finalist까지 올랐다.

유포니움 (Euphonium) 아라이 히데노리 (新井秀昇) / “Brass Band Xepher“의 수석 유포니움 연주자이자 “FUNKARU“(Euphonium Tuba Quartet) 및 “Bottoms Up Euphonium Tuba Quartet“의 멤버인 히데노리 아라이는 현재 센조쿠학원 음악대학 강사, 일본 유포니움 튜바 협회 상임이사, 국제 튜바 유포니움 협회 이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히데노리 아라이는 센조쿠가쿠엔 음악대학을 모든 과목에서 최고 우등으로 졸업했으며 제주 국제관악콩쿠르 3위, 일본 관악콩쿠르 3위, 츠켄 콩쿠르 1위 등을 수상하였다. 그가 작곡한 “유포니움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티네“는 영국 왕립음악학교 연합 위원회(ABRSM)의 필수 작품으로 선정되었다.

튜바 문지용 / 경희대학교 졸업 후 미국 남가주 대학교에서 석사과정을,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모차르체움 음대와 독일 뮌헨 국립음대에서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하였다. 경희대학교콩쿠르, 부산음악콩쿠르, 음협학생콩쿠르 등 국내 음악콩쿠르를 모두 석권하여 여러 차례 주목할 만한 영아티스트로 선정되었으며 음협해외과견콩쿠르에서 대상을 차지하였다. 현재 Seoul Brass Quintet, Golden Brass Quintet 멤버로서, 한국 금관악기 실내악의 선두에서 실내악주자로서 활동 중이며, 2014 년부터 독일 Miraphone 튜바 아티스트로 선정되어 아시아를 중심으로 독주회와 협연 등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뉴월드 챔버 오케스트라 (New World Chamber Orchestra)

1997년 ‘서울 국제음악제’를 통해 데뷔한 유라시안 필하모닉은 2014년부터 ‘뉴월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NWPO)’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필하모닉, 챔버, 스트링, 앙상블 다양한 편성의 프로그램으로 매 해 30여개 지역, 100여회의 연주를 성공적으로 마침으로써 명실상부 한국을 대표하는 ‘국민 오케스트라’로 명성을 떨치고 있다.

붙임 3 행사 홍보물(리플렛)

Artistic Director
Gum Nanse
금난세

2024
Peace Music Festival
in Tokyo

5月 13日(月) · 14(火) · 16(木)
19:00 開演 <18:30 開場>

駐日韓国文化院 ハンマダンホール(2F)
東京メトロ丸ノ内線「四谷三丁目駅」1番出口より新強直路方向に徒歩5分
東京都新宿区四谷4-4-10 Tel. 03-3357-5970

主催 Birdhouse Creatives (後援) KJE (韓日経済協会) (協力) 韓国観光公社 韓国コンサツ振興財団